

‘-고/-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權容璟

神田外語大學

1. 서론

본고는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양상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어 있다’ 구성이 몇몇 자동사에 한정되어 나타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어 있다’ 구성이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등과도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본고는 이런 차이를 문헌에서 확인하고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에 어떤 동사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제시하려고 한다.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되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를 다룬 이기갑(1981)에서는 ‘-어 있다’ 형식이 모든 용언에 걸쳐 가능한, 무척 생산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면서 중세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경쟁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어 있다’ 구성과 ‘-고 있다’ 구성의 의미를 ‘상태의 지속’으로 규정하였는데, ‘-어 있다’ 구성의 소멸도 ‘-고 있다’와의 기능의 중첩 때문에 생긴 것으로 해석하였다.¹⁾

현대국어의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을 논의한 이지양(1982)에서는 동사 분류를 위해 [일점성], [동적], [완성점]이라는 자질을 사용했다. 이 자질들 중에서 [완성점]이라는 자질이 주목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완성점]을 갖는 상황은 ‘어떤 과정 모두를 반드시 거쳐 완전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끝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자질을 사용하여 동사 유형을 분류하면서 각 동사 유형에서 나타나는 ‘-고 있다’의 의미를 ‘완결된 상태의 지속(A), 진행(B), 진행과 완결된 상태의 지속(C), 상태의 지속(D)’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진행’을 ‘지속’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고 있다’ 구성의 기본 의미를 ‘지속’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파악한 ‘-어 있다’ 구성의 의미는 ‘완결 상태의 지속’인데 ‘-어 있다’ 구성이 [완성점]을 가질 수 없는 동사와는 결합되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다.²⁾ 이 논문에서는 ‘-어 있다’ 구성이 사용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 제시하였다. 즉 ‘-어 있다’ 구성이 성립하려면 [완성점]을 갖는 동사와 결합되어야 하고, 자동사에 국한되고, 처격조사 ‘-에’를 지배할 수 있는 동사라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지양(1982)의 논의가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를 논의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의미를 파악할 때 크게 ‘진행’, ‘완료지속’, ‘상태지속’의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려고 한다. 즉, 선행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면 ‘진행’으로, 선행 동작이 완료된 후 지속되는 것은 ‘완료지속’으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상태지속’으로 나눈다. 선행 동작이 완료되는 시점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으면 ‘완료지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상태지속’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어 있다’ 구성에 나오는 동사들이 현대국어에서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지,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³⁾ 이들 동사 앞에 어떤 조사가 오는지를 파악하면 그 동사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 있다’ 구성이 중세국어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 뒤에 나타났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자동사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은 현대국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난 동사들이 점차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어 있다’ 구성이 ‘-고 있다’ 구성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고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

2.1. 15세기국어의 ‘-고 있다’ 구성

15세기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사의 의미를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현대국어에서 대응되는 동사와 의미 정보 등을 ()에 제시하였다.

- (1) 가. 두르다(막대를), 먹다, 스다(모자를 쓰다), 알다, 줌줍하다(잠잠하다), 휘우다(향을 피우다)
나. 밋다(밧다), 보다

(1가)에서 ‘줍줍하다’는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타동사들이다. (1나)는 <두시언해 중간본>에 나타나는 예이다.⁴⁾ 15세기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에서 제시한 용언들이 사용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가. 環刀 | 며 막다히를 두르고 이셔도 두립더니

<월인석보 7, 5뒤>

나. 豆餵 차반 먹고 이쇼더 엇메 몰 들고 <석보상절 24, 28뒤>

다. 頭山을 스고 이시려뇨 <두시언해 초간본 15, 6뒤>

라. 제 므슴매 알오 잇놋다 <두시언해 초간본 21, 31뒤>

마. 許히시면 묻즈보리이다 호고 쥌쥌코 잇거늘

<월인석보 10, 67뒤>

바. 豆餵 香 휘우고 잇거니 <석보상절 24, 26뒤>

(3) 가. 드럿거나 호물 밋고 이쇼라 <두시언해 중간본 2, 41뒤>

나. 프른 石壁을 보고 이슈리라 <두시언해 중간본 13, 32앞>

위에서 제시한 예에서 ‘두르고 있다, 먹고 있다, 휘우고 있다’ 등은 ‘진행’을, ‘스고 있다’는 ‘완료지속’을, ‘알오 있다, 밋고 있다’ 등은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완료지속’보다는 ‘상태지속’의 예가 많다고 하겠다.

2.2. 16세기국어의 ‘-고 있다’ 구성

16세기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을 보이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4) 넙다(입다), 디키키키텐다(지키다), 드리다(데리다), 호다

(4)에서 16세기국어에서도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이 나타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가. 치은 제 호웃웃 넙고 잇다 호여 <이륜행실도 육, 43앞>

나. 좌경이와 스당을 디키키텐오 잇다가 자피여 <이륜행실도 육, 23앞>

다. 조금안 아히들만 드리고 이셔 <계축일기 하, 17뒤>

라. 어딘 남신인 양으로 호고 잇거든 <번역노절대 하, 54뒤>

(5)의 ‘넙고 있다’는 ‘완료지속’으로, ‘디키키텐오 있다, 드리고 있다’는 ‘상태지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17세기국어의 ‘-고 있다’ 구성

17세기국어의 ‘-고 있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6) 기드리다, 니르다(이르다, 말하다), 세우다(세우다), 안다

(6)에서 나타나듯이 17세기국어에서도 ‘-고 있다’ 구성에 쓰이는 동사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이 나타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 가. 동지돌 보름날을 기드리고 잇더니라 <계축일기 하, 13뒤>
- 나. 兪官들의 니르고 잇습너이다 <첩해신어 초2, 17앞>
- 다. 칼홀 두로 버려 세우고 이셔셔 <계축일기 상, 8뒤>
- 라. 오히녀 어의 주검을 안고 잇더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8, 15뒤>

(7)에서 ‘니르고 있다’는 ‘진행’으로, ‘세우고 있다, 안고 있다’는 ‘완료지속’으로, ‘기드리고 있다’는 ‘상태지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18세기국어의 ‘-고 있다’ 구성

18세기국어에 나타나는 ‘-고 있다’ 구성은 이전 시기보다 많이 볼 수 있다.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 근심^ㅎ다, 기드^리다, 낚^다(입^다), 낫^다(짚을 잇^다), 늦^짓다(낮^빛을 바꾸^다), 드^리다, 더^접ㅎ다, 먹^다, 모^로다, 밧^들다, 슈^절ㅎ다, 싱^각ㅎ다(생^각하^다), 쓰^다(문^서에), 아^니ㅎ다/않^다, 알^외다(아^뢰다), 의^심ㅎ다, 의^지ㅎ다, ㅎ^다

(8)에서 보듯이 17세기 자료에 비해 18세기 자료에서 ‘-고 있다’ 구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사들이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는 ‘진행’, (10)은 ‘지속’의 의미를 보이는 예들이다.

- (9) 가. 혼자 안자셔 집을 닛고 잇노라 <해동가요 85, 李珣 高山九曲歌>
- 나. 눈화 가지고 각각 먹고 잇더니 <오륜행실도 형, 38앞>
- 다. 음악문서에 쓰고 잇는 바 <경신록언해 52앞>
- (10) 가. 曹操 | 정히 근심호고 이실 제 홀연이 <삼역총해 7, 17뒤>
- 나. 난간^ㄱ의 서셔 기드리고 잇더니 <삼역총해 1, 15앞>
- 다. 후개 훗웃 넙고 잇더니 <오륜행실도 붕, 20뒤>
- 라. 玄德이 노 짓고 이실 제 <삼역총해 10, 1앞>
- 마. 처와 어린 아히를 드리고 잇거늘 <종덕신편언해 중, 27앞>
- 바. 선비 세상에 일을 모르고 이셔 <삼역총해 3, 2앞>

- 사. 계모를 밧들고 이셔 <오륜행실도 형, 42앞>
 아. 속으로 의심하고 이실 제 <삼역총해 3, 25앞>
 자. 집 밧긔 막을 의지하고 이셔 <오륜행실도 효, 11뒤>

(9)에 나오는 ‘밧고 있다, 먹고 있다, 쓰고 있다’ 등은 ‘진행’의 의미로 볼 수 있다. (10)에 나오는 ‘밧고 있다, 늦 짓고 있다’는 ‘완료지속’으로, ‘근심하고 있다, 기드리고 있다, 드리고 있다, 모르고 있다, 밧들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등은 ‘상태지속’으로 볼 수 있다.

2.5. 19세기국어의 ‘-고 있다’ 구성

19세기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 (11) 벗다, 붓잡다(붙잡다), 촛다(시계를 차다), 혀다(켜다)

(11)에서 보면 19세기국어에서도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 있다’ 구성의 변화라기보다는 자료와 관련되는 문제일 것 같다.

이들 동사들이 나타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가. 시몬 베드로 | 옷술 벗고 잇다가 <신약전서 요 21, 7>
 나. 이 사람을 붓잡고 잇스니 <신약전서 눅 8, 29>
 다. 심전 촛고 잇던 전디 모양일너라 <태상감응편도설언해 3, 8앞>
 라. 씨를 씩고 등불을 혀고 잇서 사람이 <신약전서 눅 12, 35>

(12)에 나오는 ‘벗고 있다, 붓잡고 있다, 촛고 있다, 혀고 있다’는 모두 ‘완료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

3.1. 15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

15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 (13) 가다, 가지다, 값다(감추다), 견다, 걸다(걸리다), 걸이다(걸리다), 供養^하다, 그우들다(그올다+들다;굴러들다), 기드리다(기다리다), ᄃᆞᆫ^하다(가득하다), ᄃ리다, ᄃ숨알다(가말다, 주관하다), ᄃ다(갓추어져있다), ᄃ초다(갓추다), ᄃᄃ^하다(갈다), ᄃᄃ다(가루다, 나란히하다), 나다, 남다, 낫다(나아가다), 날다(나타나다), 내다(몸

을), 녀다(가다), 노니다(노닐다), 눅다, 니르다(이르다, 말하다), 니를다(이르다, 다다르다), 닙다(입다), 닛다(잇다), 논호다(나누다), 다돌다(다다르다), 다완다(다그치다), 닻하다, 對하다, 더블다(더블다), 더위잡다, 두르다, 두피다(덮이다), 뉘다(덮다), 得하다, 들다(소리를), 들다, 디니다(지니다), 디다(지다), 덕회다(지키다), 드리다(데리다), 드려오다, 드외다(되다), 둘이다(달리다), 둘다(담기다), 뉘다(담그다), 막덜이다(막질리다), 맛나다(만나다), 램다(말다), 맞다, 머굴위다(막히다), 머굼다(머금다), 머물다(머물다), 멀다, 모르다, 몬다(모이다), 몬하다, 뵈습다/뵈시다, 물하다(무리짓다), 뭇기다(뭇이다), 무르다(물건을 무르다), 밋다(미치다), 못다(마치다), 띵다(매다), 밍굴다(만들다), 받다, 벌다(벌여있다, 늘어서다), 범글다(범히다), 병을다(벌어지다), 病하다, 보다, 불휘하다(뿌리박다), 불다(불다), 브리다(버리다), 붉다(밝다, 밝아지다), 불기다(밝히다), 띵다(떨어지다), 띵러디다(떨어버리다), 뵈다(싸다), 뵈다(꺾다), 뵈리다(꾸리다), 띵다(터지다), 사기다(새기다), 살다, 서리다?, 설다(치우다), 쉼다(섞다, 섞이다), 섯듣다(섞여서떨어지다) 섯버물다(섞여 엉키다), 盛하다, 셔다(서다), 屬하다, 솟다, 守하다, 受하다, 修行하다, 습다, 쉬다, 시름하다, 신다, 스랑하다(생각하다), 써디다(꺼지다), 싸르다(바르게하다), 아니하다, 安하다, 앓다, 알다, 어울다(어우르다), 엷뵈다(엷매이다), 여회다(여의다, 떠나다), 오다, 오을다(온전하다), 오을오다(온전하게하다), 울마가다(움아가다), 움주취다(움츠러지다), 爲頭하다(으뜸가다), 爲하다, 因하다, 일다, 일우다(이루다), 仍하다, 잡다, 傳하다, 從하다, 좃다(좃다), 住하다, 踞여다(꺾이다), 즐기다, 짓다, 鎮守하다, 즈므다(잠기다), 줌줌하다(잠잠하다), 줌탁하다(잠착하다, 참척하다), 淸淨하다, 體得하다, 꺾다, 품다, 프다(피다), 하다(많다), 헤혀다(헤치다), 現하다, 翫두르다(둘러싸다), ㅎ다

(14) 꺾다(꺾다), 길다(남다), ㄱ다(가다), 놓다, 띵다(임하다), 뉘다(짚다), 머물우다(머물게하다), 버물다(엷매이다), 버리다(벌이다), 비취다(비치다, 비추다), 스다(글을 쓰다), 열이다(배필로 삼다), 오라다(오래다), 오르다(오르다), 움다, 울다, 隱映하다, 이을다(시들다), 일벗다(훔치다), 臨하다, 向하다

(13)에서 보듯이 약 150개의 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4)는 『두시언해 중간본』에 나오는 동사로, (13)에 없는 동사들이다. (13)과 (14)를 합치면 약 170개 정도의 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것이다. 15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은 널리 사용되던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 (14)에 나오는 동사에 대응되는 현대국어의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를 검토해 보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가 34개이고,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68개 정도이다. 그리고 '-에'와 '-을'을 둘 다 지배하는 동사가 12개이고, '-에'와 '-을'을 둘 다 지배하지 않는 동사가 8개이다. 결국 목적격조사 '-을'이 올 수 있는 동사가 약 80개나 된다는 것은 타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이는 것이 15세기국어에서 일반적인 것이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15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쓰인 동사 중에서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은 '완료지속'의 의미를 보이고, '-고 있다' 구성은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보이는 동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가다, 나다, 날다, 낫다, 녀다, 늙다, 드려오다, 묻다, 못기다, 뼈디다, 뼈디다, 살다, 셔다, 습다, 써디다, 앓다, 오다, 올마가다, 프다; 오르다, 이올다

(16) 가. 王師는 어디 간 잇는고 <두시언해 초간본 10, 19뒤>
 나. 사르미 世間에 나아 이셔 <석보상절 11, 42뒤>
 다. 그 床에 ㄹㄹ기 누번 잇고 <월인석보 21, 43앞>
 라. 比丘돌히 혼 고대 모다 이셔 <석보상절 23, 41앞>
 마. 菩薩人 어마니미 사라 이셔 <월인석보 21, 27앞>⁵⁾
 바. 比丘 | 蓮人 곳 우희 안자 잇거늘 <석보상절 24, 16앞>
 사. 그제 烏蘇慢이 와 이실씨 <석보상절 3, 29앞>
 아. 곳 피 이셔 여름 열며 <월인석보 11, 11뒤>
 자. 누른 巖 | 나뭇 그테 올아 잇느니 <두시언해 중간본 2, 50뒤>

(15)에 제시한 동사들은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은 '완료지속'의 의미를, '-고 있다' 구성은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두시언해 중간본』에 나오는 동사는 뒤쪽에 제시하였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보면 (15)에 나오는 동사들이 '뼈디다, 써디다, 이올다'를 제외하고 대체로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들임이 주목된다. (16)은 이들 동사들이 쓰인 예인데, '가다, 나다, 늙다, 묻다, 살다, 앓다, 오다, 피다; 오르다' 등이 '-어 있다' 구성에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완료지속'으로 이해된다.

15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쓰인 동사 중에 현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만 나타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17) 가지다, 값다, 견다, 기드리다, ㄹ리다, ㄹ초다, 니르다, 낚다, 當하다, 똥다, 들다, 디니다, 덕회다, 드리다, 돌이다, 똥다, 맛나다, 랐다, 머굽다, 모르다, 몰하다, 모시다, 밍굴다, 보다, 브리다, 불기

다, 받다, 뿌리다, 사기다, 섰다, 修行하다, 쉬다, 신다, 사랑하다, 알다, 일우다, 잡다, 傳하다, 좃다, 즐기다, 짓다, 품다, 하다; ㄹ다
 돕다, 놓다, 덮다, 비취다, 울다

(17)에 제시한 동사들은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는 쓰이지 않고 '-고 있다' 구성에만 쓰이는 동사들이다. 현대국어에서 '쉬다, 울다'를 제외한 다른 동사들이 지배하는 조사가 대체로 목적격조사 '-을'임이 주목된다.

(17)에 나오는 동사들을 '진행, 지속'의 의미로 나누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 가. 馱 門 알피 겨르^ㄹ이 거러 있다 <남명집언해 하, 15앞>
 나. 주리며 치워 나날 우리 잇는가 <두시언해 중간본 17, 1뒤>
- (19) 가. 衆生이 다 靈覺을 가져 이실씨 <법화경언해 1, 109앞>
 나. 니르와다 서르 기드려 이시니 <선종영가집언해 상, 78뒤>
 다. 소리와 새소리를 드러 이샤 <월인석보 7, 60앞>
 라. 受苦^ㄹ비 덕희여 이셔 <월인석보 9, 29앞>
 마. 無量諸天을 드려 잇고 <월인석보 8, 34앞>
 바. 捨得은 途中엿 이룰 맛다 이실시 <금강경삼가해 5, 10뒤>
 사. 다 석로 땡^ㄹ라 잇고 <월인석보 21, 42뒤>
 아. 네 일 몰라 이실씨 <월인석보 8, 103앞>
 자. 晝夜애 조차 되셔 잇느니라 <능엄경언해 7, 49앞>
 차. 잇는 고돌 了細히 보아 이슈물 因^ㅎ야 <능엄경언해 10, 26뒤>
 카. 모든 사르미 알피 브려 잇느니 <남명집언해 하, 67뒤>
 타. 山岳이 놀카온더 사겨 잇도다 <두시언해 초간본 24, 26뒤>
 파. 空을 아라 잇다가 空을 떠러 ㅅ릴시 <금강경삼가해 2, 13뒤>
 하. 도트랏 막다히를 디퍼 이시리로다 <두시언해 중간본 3, 45뒤>
- (20) 가. 善慧 니버 잇더신 鹿皮오술 바사 <월인석보 1, 16앞>
 나. 구슬 그므리 우희 두퍼 잇느니 <월인석보 14, 72앞>

(18)의 '거러 있다, 우리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진행'의 의미를 보이는 '-어 있다' 구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행'의 '-어 있다' 구성으로 볼 수 있는 예는 이 두 예뿐이다. 이미 15세기국어에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어 있다' 구성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⁶⁾

(19)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중에서 '가져 있다, 맛다 있다, 땡^ㄹ라 있다, 브려 있다, 사겨 있다, 디퍼 있다'는 '완료지속'을 나타내고, '기드려 있다, 드러 있다, 덕희여 있다, 드려 있다, 몰라 있다, 되셔 있다,

보아 있다, 아라 있다'는 '상태지속'을 나타낸다.⁷⁾ (19)에 나오는 '땡그라 있다, 버려 있다, 사겨 있다'는 현대국어로 하면 '만들어져 있다, 버려져 있다, 새겨져 있다' 정도로 이해된다. (20)에 나오는 '넙다(입다), 들다(덮다)'는 현대국어에서 '진행'과 '완료지속'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완료지속'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15세기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형용사 뒤에 '-어 있다' 구성이 쓰였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1) 그독하다, 곧하다, 멀다, 붉다, 盛하다, 줌줌하다, 오올다, 하다;
오라다

(22) 가. 아니하야 처섬 곧하야 이실씨오 <월인석보 1, 50뒤>

나. 병으로미 손지 머리 잇고 <월인석보 15, 54앞>

다. 그제 춧브리 뻬듯 볼가 잇더니 <석보상절 3, 26앞>

라. 그올히 호오사 오오라 이쇼물 보니라 <두시언해 초간본 25, 39뒤>

마. 넷 일 스랑하는 쁘디 하 잇노니 <두시언해 초간본 14, 5앞>

바. 燭 갓 오라 性命 | 오라 이실시 <두시언해 중간본 2, 58뒤>

(22)에서 '곧하다, 멀다, 붉다, 오올다, 하다; 오라다' 등이 '-어 있다' 구성에 쓰였음을 볼 수 있다.⁸⁾ 15세기국어에 쓰인 '형용사+어 있다' 구성은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부사+있다' 구성으로 나타난다.

15세기국어 자료에는 현대국어에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동사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한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그우들다, 굶다, 다완다, 막덜이다, 머굴위다, 물하다, 벌다, 범글다, 병을다, 병하다, 불휘하다, 설다, 섯듣다, 섯버물다, 싸르다, 오올오다, 움주취다, 위두하다, 즈므다, 줌탁하다, 헤혀다; 굶다, 길다, 덜다, 버물다, 얼이다, 일벗다

위의 동사들 중에서 '머굴위다(막히다), 범글다(엷히다), 병을다(벌어지다), 움주취다(움츠러지다), 즈므다(잠기다); 버물다(엷매이다)' 등의 동사가 주목된다. 이 동사들이 쓰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가. 權에 머글위여 이쇼물 가줄비니 <월인석보 13, 25뒤>

나. 네 손 자보매 범그러 이셔 <농업경언해 3, 75뒤>

다. 江湖에 병으러 잇고 <두시언해 초간본 25, 11앞>

라. 비에 뷔트러 움주취여 잇느니 <구급방언해 상, 32뒤>

마. 受苦스 바다해 즈마 잇느니 <월인석보 9, 22앞>

바. 게으른 氣質에 버므러 이쇼를 돌히 너기노니 <두시언해 중간본 1, 33뒤>

(30)에서 ‘머글위다, 범글다, 병을다, 움주취다, 즈므다; 버물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완료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동사들이 현대국어에서 피동형이나 ‘-어지다’ 형식에 대응되는 것은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되는 것 같다. 이지양(1982)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할 수 있는, 타동사의 피동형과도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2. 16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

16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25) 가다, 가지다, 갓다, 거릿기다(거리끼다), 곁ㅎ다, 고티다(고치다), 꽃다(꽃다), 긴다, ㄹㄷㅎ다, ㄹ다(갓추어져 있다), 나다, 내다, 논호다(나누다), 닉다(익다), 닛다(잇다), 거상닙다(거상하다), 다들다, 다리다?, 다ㅎ다(다하다), 담기다, 담다, 도의다(되다), 돛다(좃다), 두다, 드러가다(들어가다), 드리다/드리우다, 드이혀다(뒤집다), 들다, 디킴다, 돌다(깃을 달다), 돛기다(담기다), 만나다(만나다), 머굼다, 머물다, 몰ㅎ다, 뵈습다/뵈시다(모시다), 물어디다(무너지다), 迷惑ㅎ다, 므르다(목이 마르다), 뵈굴다(만들다), 받다, 버물다(엮매이다), 벼슬ㅎ다/뵈슬ㅎ다(벼슬하다), 병ㅎ다, 브리우다(짐을 부리다), 불다(불다), 비스다(꾸미다), 빗불다, 비호다(배우다), 뵈다(싸다), 살다, 성ㅎ다, 신다, 씨이다(끼다), 질다(짚다), 아니ㅎ다, 앓다, 알다, 언다, 업든다(엮드러지다), 옳다, 여희다(여의다), 오르다(오르다), 원ㅎ다, 인ㅎ다, 자피다(잡히다), 잡다, 젓다, 좃다, 쥐다, 짓다, 청ㅎ다, ㅌ다(타다), 꺾티오다, 흘다(흘다, 흘어지다), ㅎ다

(25)에서 77개 정도의 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국어와 비교하면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어 있다’ 구성이 꽤 생산적인 구성이었다고 하겠다.

(25)에 나오는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를 보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가 13개,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34개이고, ‘-에’와 ‘-을’을 둘 다 지배하는 동사가 11개, ‘-에’와 ‘-을’을 모두 지배하지 않는 동사가 5개이다. 목적격조사 ‘-을’이 올 수 있는 동사가 약 45개나 되는데, 이것은 16세기국어에서도 타동사 뒤에 ‘-어 있다’ 구성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25)에 나오는 동사들 중에서 우선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은 ‘완료지속’의 의미를 보이고, ‘-고 있다’ 구성은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보이는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가다, 나다, 닉다, 드러가다, 물어디다, 머르다, 살다, 앓다, 오르다, 자피다, 짓다

(27) 가. 네 어디 간 잇던다 <번역박통사 37뒤>

나. 우리 바비 니거 잇느니 <번역노결대 상, 40앞>

다. 빙 골프고 목 몰라 이신 저기 <번역노결대 상, 41뒤>

라. 짝은 소내 자피 잇나니 <칠대만법 6앞>

(26)에 나오는 동사들은 ‘닉다, 물어디다, 머르다’를 제외하면 대체로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들이다. (27)은 이들 동사들이 쓰인 예인데, (27)에서 ‘가 있다, 니거 있다, 몰라 있다, 자피 있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완료지속’을 나타낸다.

다음은 현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이다.

(28) 가지다, 갠다, 고티다, 꽃다, 다하다, 담다, 두다, 돌다, 맛나다, 머굽다, 묻하다, 뵈습다/모시다, 밍궂다, 비호다, 뵈다, 신다, 쪼다, 알다, 얻다, 원하다, 잡다, 좇다, 쥐다, 짓다, 청하다, 하다

(29) 가. 묻 가지는 머슴을 가져 이시며 <번역소학 9, 73뒤>

나. 이제 고티 잇는가 묻하얏는가 <번역노결대 상, 26앞>

다. 겨집비 사 머리에 고자 잇더이다 <번역소학 10, 17앞>

라. 大萬法으로 모도와 밍궂라 잇느니 <칠대만법 2앞>

마. 나 도히 비수를 빙화 잇거늘 <번역소학 9, 59앞>

바. 부텃 법에 스뭇 아라 이쇼미 <번역박통사 36앞>

사. 十方世界를 다 자바 이쇼디 <칠대만법 5앞>

아. 두 소늘 다 모도 쥐여 잇느니 <칠대만법 11앞>

자. 저희 지서 잇는 밥을 우리 주워 <번역노결대 상, 45앞>

(28)에 나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29)는 이들 동사가 쓰인 예를 보인 것인데, (29)에 나오는 예들 중에서 ‘가져 있다, 고자 있다, 고티 있다, 밍궂라 있다, 자바 있다, 쥐여 있다, 지서 있다’는 ‘완료지속’의 의미로, ‘빙화 있다, 아라 있다’는 ‘상태지속’의 의미로 이해된다. ‘고티 있다, 밍궂라 있다, 지서 있다’를 현대국어로 하면 ‘고쳐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지어져 있다’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 (29)에서 보듯이 ‘진행’의 의미를 보이는 예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진행’의 ‘-어 있다’ 구성이 16세기국어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

는다고 하겠다.

형용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0) ㄹ독ㅎ다, 동다, 성ㅎ다

(31) 가. 빈 짜 업시 ㄹ독ㅎ야 이쇼더 <칠대만법 7앞>

나. 술윗 느룻 바돌 다 ㄹ독ㅎ야 잇다 <번역노걸대 하, 36앞>

다. 曹氏 알피 성ㅎ여 이실 제도 <번역소학 9, 63앞>

(31)에서 'ㄹ독ㅎ야 잇다, ㄹ독ㅎ야 잇다, 성ㅎ여 잇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ㄹ독ㅎ야'는 '동다'와 관련되는 형태로 보인다.

16세기국어 자료에서도 현대국어에서 그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동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한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꺾다, 거상닙다, 드위혀다, 버물다, 병ㅎ다, 빗블다, 비스다, 업든
다, 꺾티오다

(33) 가. 虛空에 五輪性이 ㄹ자 잇건마룬 <칠대만법 15앞>

나. 惝恍 버므러 잇는 문윗 비단 <번역노걸대 하, 24앞>

다. 굴항에 업드러 잇느니라 <정속언해 이, 29뒤>

(32)에 제시한 동사 중에서 '빗블다, 업든다, 꺾티오다'는 동사의 어간과 어간이 다른 요소의 개입 없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33)에 나오는 '꺾다(꺾추어져 있다), 버물다(엮매이다), 업든다(엮드리지다)'는 현대국어에서 피동형이나 '-어지다' 형식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3.3. 17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

17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국어와 비교하면 그 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34) 길러나다(기르다+나다)?, 남다, 눅다, 동다(좋다, 좋아지다), 드
외다/되다, 돌다(깃을 달다), 더ㅎ다(대하다), 머물다, 뵈웁다/뵈시
다(모시다), 물허디다(무너지다), 밀티다(밀치다), 받다, 벼슬ㅎ다,
병들다, 부리우다(짐을 부리다), 살다, 셔다(서다), 싸히다(쌓이
다), 앓다, 오르다(오르다), 울오다(온전하게 하다), 쫓다, 죽이다,
짓다

(34)에서 보듯이 24개 정도의 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였는데, 이들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를 보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가 7개,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7개, '-에'와 '-을'을 모두 지배하는 동

사가 3개, '-에'와 '-을'을 지배하지 않는 동사가 3개이다. 17세기국어에서도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약 10개 정도 있음이 주목된다.

위에 나오는 동사들 중에서 우선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은 '완료지속'의 의미를 보이고, '-고 있다' 구성은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보이는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눕다, 물허디다, 병들다, 살다, 셔다, 싸히다, 앉다, 오르다

(36) 가. 일절 먹디 못호고 누어 잇스오니 <첩해신어 初2, 3앞>

나. 싸히 흔 곳 드리 물허더 잇더니 <노걸대언해 상, 23뒤>

다. 벗이 병드러 잇거든 <노걸대언해 하, 43앞>

라. 아비 사라 이실 적 그티 허더니 <동국속신속삼강 孝, 7뒤>

마. 녀피 흰 털이 바르 올나 이시면 <마경초집언해 상, 8뒤>

(35)에 나오는 동사들은 대체로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들이다.

(36)에서 '누어 있다, 물허더 있다, 병드러 있다, 사라 있다, 올나 있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완료지속'을 나타낸다.

다음은 현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이다.

(37) 돌다, 뵈웁다/뵈시다, 죽이다, 짓다

(38) 가. 다홍비단으로 깃 드라 이시니 <노걸대언해 하, 47뒤>

나. 상해 할아버닐 뵈셔 이셔 <동국신속삼강 孝7, 10뒤>

다. 동성이며 다 내여 죽여 잇고 <계축일기 상, 42앞>

라. 저희 지어 잇는 밥을 우리 주어 <노걸대언해 상, 40뒤>

(37)에 나오는 동사들은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들이다. (38)에서 '드라 있다, 뵈셔 있다, 죽여 있다, 지어 있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드라 있다, 죽여 있다, 지어 있다'는 '완료지속'으로, '뵈셔 있다'는 '상태지속'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⁹⁾ '상태지속'의 예가 줄어들 것을 알 수 있는데, '뵈셔 있다'를 제외하면 '상태지속'으로 쓰인 '-어 있다' 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형용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인 예는 '똥다'만이 확인된다.

(39) 똥다

(40) 병이 도한 잇더니 <동국신속삼강 孝2, 47뒤>

(40)에 나오는 '똥다'는 '좋아지다'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중세국어에서 형용사가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4. 18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

18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41) 가다, 갈리다, 갓티다(갓히다), 꺾오다(꺾다), 깃치다(끼치다), 굴
이다(갈리다), 나다, 남다, 낡다, 니르다(이르다, 말하다), 니롤다
(이르다, 다다르다), 낫다(잇다), 다들다(다다르다), 더피다(덮이
다), 되다, 도탑다(도탑다), 두르다, 막다, 맞지다(맞기다), 머물다,
멀다, 못ㅎ다, 모르다(무르다, 물러나다), 밋치다(미치다), 밋치다
(맺히다), 벌다(벌여있다), 보솔피다, 부리우다(짐을 부리다), 부티
다(부치다), 빗기다(가로지르다, 비끼다), 브리다(바르다), 불이다
(버리다), 뿌다(글을 쓰다), 삭이다(새기다), 살다, 서리다, 셔다(서
다), 숨기다, 숨다, 실리다, 심심ㅎ다(민망하다, 답답하다), 씹다
(씹다), 슬지다, 싱각ㅎ다, 썬나다(떠나다), 썬러디다(떨어지다),
쓰다(뜨다), 쓰다(모자), 아니ㅎ다, 앓다, 언다, 오다, 의심ㅎ다, 잡
다, 잣다, 疔ㅎ다, 지다, 직회다(지키다), 짓다, 타오다, 布ㅎ다, 품
어지다, 흘다, ㅎ다

(41)에서 보듯이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는 64개 정도로 17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어 있다' 구성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이들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를 보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가 15개, 목적격조
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17개, '-에'와 '-을'을 모두 지배하는 동사가
12개, '-에'와 '-을'을 모두 지배하지 않는 동사가 5개이다. 여전히 '-을'
을 지배하는 동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1)에 나오는 동사들 중에서 현대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은 '완료지
속'의 의미를 보이고, '-고 있다' 구성은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보이
는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가다, 나다, 밋치다, 살다, 셔다, 숨다, 실리다, 썬러디다, 앓다,
오다

(43) 가. 실이 되야 구뵤구뵤 밋쳐 이셔 <청구영언 395>

나. 夕陽에 홀로 셔 이셔 <청구영언 7 李穡>

다. 세량의 상쇠 일기에 실녀 잇스오니 <천의소감언해 2, 9앞>

라. 비록 악취의 썬러져 이셔도 <지장경언해 하, 17뒤>

(42)에 나오는 동사들은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들이다. (43)에서
'밋쳐 잇다, 셔 잇다, 실녀 잇다, 썬러져 잇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
두 '완료지속'으로 보인다.

다음은 현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으로만 쓰이는 동사들이다.

- (44) 낮다, 막다, 맞지다, 못하다, 보슬피다, 붙이다, 삭이다, 숨기다,
 쉬다, 생각하다, 언다, 의심하다, 잡다, 직회다, 짓다, 하다
- (45) 가. 萬事를 낮져 잇노라 <해동가요 195, 尹善道 漁父四時詞>
 나. 桴으로 직회라 흥여 맞져 잇고 <삼역총해 9, 18앞>
 다. 더 墳墓 | 空山에 붙여 이신들 <오륜전비언해 2, 35앞>
 라. 嚶혀 혼 군스 숨겨 이시면 <삼역총해 9, 7앞>
 마. 내 물을 잡아 이시마 <청어노걸대 3, 3앞>
 바. 혼 사람이 짐 직회여 이셔 <몽어노걸대 3, 6앞>
 사. 도라보니 스를 네 문 지어 잇고 <삼역총해 7, 14뒤>

(44)에 제시한 동사들은 대부분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들이다. (45)에 나오는 ‘맞져 있다, 붙여 있다, 숨겨 있다, 잡아 있다, 지어 있다’는 ‘완료지속’으로, ‘낮져 있다, 직회여 있다’는 ‘상태지속’으로 볼 수 있다. ‘붙여 있다, 지어 있다’는 현대국어로는 ‘버려져 있다, 지어져 있다’로 해야 할 것이다.

형용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인 예를 18세기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 (46) 도뚝다, 멀다, 심심하다, 잣다
- (47) 가. 還上 도뚝와 잇고 小川魚도 어더 잇고 <청구영언 318>
 나. 淸興이 멀어 잇다 <해동가요 206 尹善道 漁父四時詞>
 다. 속으로 심심히여 이실 제 <삼역총해 5, 2뒤>
 라. 聒불 소리 자자 잇고 <염불보권문 海, 30뒤>

(47)에서 보듯이 형용사가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것은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근대국어에서도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국어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피동사나 사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능동사/피동사’ 또는 ‘주동사/사동사’를 같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8) 가. 가도다/갓티다, 가르다/갈리다, 굴다/굴이다, 뒹다/뒹치다,
 뒹다/비끼다, 실다/실리다
 나. 길다/깃치다, 랫다/맛지다, 붙다/부티다, 숨다/숨기다

(48가)는 ‘능동사/피동사’의 관계이고 (48나)는 ‘주동사/사동사’의 관계이다. 피동사나 사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 있다’ 구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동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 있다’ 구성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이는 것은 사동사가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라는 것을 고려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사동사가 나타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9) 가. 淡薄 혼 中에 다만 깃쳐 잇는 것슨 <해동가요 513 金壽長>

나. 직희라 흔여 맛져 잇고 <삼역총해 9, 18앞>

다. 슈쥬 짜히 부티여 이셔 <오륜행실도 朋, 10앞>

라. 힝혀 흔 군스 숨겨 이시면 <삼역총해 9, 7앞>

(49)의 ‘깃쳐 잇는’은 현대국어로는 ‘끼쳐져 있는’으로, ‘맛져 잇고’는 ‘맡겨져 잇고’로, ‘부티여 이셔’는 ‘부쳐져 있어’로, ‘숨겨 이시면’은 ‘숨기고 있으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5. 19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

19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0) 가다, 리키다(가혀다>개키다), 되다, 메우다, 셔다(서다), 숨다, 찌다(깨다), 뜨다(뜨다), 오다, 지다, 타오다

(50)에서 보듯이 19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는 11개 정도이다. 18세기국어와 비교하면 그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를 보면 처격조사 ‘-에’를 지배하는 동사가 4개,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2개, ‘-에’와 ‘-을’을 모두 지배하는 동사가 2개, ‘-에’와 ‘-을’을 모두 지배하지 않는 동사가 2개이다.

19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들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1) 가. 싸로 깃켜 잇더라 <신약전서 요 20, 7>

나. 다섯 둘 동안에 숨어 잇서 <신약전서 눅 1, 24>

다. 너희 논 여기 머물고 찌여 잇스라 <신약전서 막 14, 34>

라. 池宴 座客이 누구누구 와 잇더냐 <가곡원류 435>

(51)에 나오는 ‘깃켜 잇다, 숨어 잇다, 찌여 잇다, 와 잇다’ 등은 모두 ‘완료지속’으로, ‘상태지속’을 나타내는 예를 찾기 어렵다.

4. '-고/-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정리하여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에서 모두 나타나는 동사들에 대해 보기로 한다. 그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데 그 동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난 시기에서만 제시하겠다.

(52) '-고/-어 있다' 구성에서 모두 볼 수 있는 동사

	'-고 있다' 구성	'-어 있다' 구성
15세기	스다(모자), 알다, 줌줌하다; 보다	기드리다, 니르다, 낫다, 닛다, 덕회다, 드리다, 모르다, 보다, 스랑하다, 아니하다, 알다, 줌줌 하다, 하다; 스다(글)
16세기	넙다, 디키편다, 드리다, 하다	
17세기	기드리다, 니르다	
18세기	닛다, 모르다, 심각하다, 쓰다 (글), 아니하다, 의심하다	쓰다(모자), 의심하다
19세기		

(52)에서 보듯이 '-고 있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동사들은 '쓰다(모자), 의심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15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 있다' 구성에 쓰이던 동사들이 점차 '-고 있다' 구성에 쓰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 있다' 구성이 15세기국어부터 19세기국어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가장 늦게 나타나는 시대의 표기로 제시하겠다.

(53) '-어 있다' 구성에서 시대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동사들

가. 16세기에서 15세기와 동일한 동사

가다, 가지다, 꺾다, 나다, 내다, 논호다, 닛다, 다들다, 도의다, 들다, 디키편다, 둠기다, 만나다, 머굽다, 머물다, 묻하다, 뵈습다, 뵈글다, 받다, 버들다, 병하다, 붙다, 빠다, 살다, 성하다, 아니하다, 앓다, 알다, 여회다, 오르다, 인하다, 잡다, 좇다, 짓다, 하다

나. 17세기에서 동일한 동사

15세기: 남다, 눅다, 드외다, 덕하다, 머물다, 뵈웁다, 받다, 살다, 셔다, 앓다, 오르다, 올오다, 좇다, 짓다

16세기: 똥다, 둘다, 물허디다, 벼슬하다, 부리우다

다. 18세기에서 동일한 동사

15세기: 가다, 나다, 남다, 니르다, 니룰다, 다둔다, 더피다, 되다, 두르다, 머물다, 멀다, 못하다, 밋치다, 벌다, 불이다, 쓰다, 삭이다, 살다, 서리다, 셔다, 숨다, 생각하다, 써러디다, 아니하다, 앓다, 오다, 잡다, 지다, 직회다, 짓다, 하다

16세기: 부리우다, 얻다, 홀다

라. 19세기에서 동일한 동사

15세기: 가다, 되다, 셔다, 숨다, 오다, 지다

18세기: 쓰다, 타오다

(53)에서 보면 15세기국어에서 나타나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서 모두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의 5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 있다' 구성에 사용되는 동사들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17세기, 18세기국어에서 새롭게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를 고찰하는 것도 '-어 있다' 구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4) 17세기: 밀티다, 병들다, 싸히다, 죽이다

18세기: 갈리다, 갓티다, 피오다, 깃치다, 굴이다, 닛다, 도툽다, 막다, 맞지다, 미치다, 보솔피다, 부티다, 빗기다, 버리다, 숨기다, 실리다, 심심하다, 쉬다, 솔지다, 써나다, 쓰다, 의심하다, 잣다, 타오다, 품어지다

(54)에서 피동형이나 사동형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국어의 '-어 있다' 구성에 타동사의 피동형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들이 지배하는 조사가 처격 조사 '-에'인지 목적격조사 '-을'인지 살펴보고 한다. 각 시대별로 동사의 수만 제시하겠다.

(55)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

	[+에]	[+을]	[+에][+을]	[-에][-을]
15세기	34개	68개	12개	8개
16세기	13개	34개	11개	5개
17세기	7개	7개	3개	3개
18세기	15개	17개	12개	5개
19세기	4개	2개	2개	2개

(55)에서 보면 15세기나 16세기에서는 ‘-어 있다’ 구성에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오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어 있다’ 구성에 오는 것은 근대국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과 3장에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의미를 ‘진행, 완료지속, 상태지속’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제시한 예에 나오는 동사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6) ‘-고 있다’ 구성의 의미

	진행	완료지속	상태지속	형용사
15세기	3개	1개	2개	1개
16세기	0개	1개	2개	0개
17세기	1개	2개	1개	0개
18세기	3개	2개	7개	0개
19세기	0개	4개	0개	0개

(57) ‘-어 있다’ 구성의 의미

	진행	완료지속	상태지속	형용사
15세기	2개	8개	8개	9개
16세기	0개	7개	2개	3개
17세기	0개	3개	1개	1개
18세기	0개	5개	2개	4개
19세기	0개	4개	0개	0개

(56)에서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고 있다’ 구성의 양상을 알 수 있는데 ‘진행’이나 ‘완료지속, 상태지속’의 예가 비슷하게 보인다. ‘-어 있다’ 구성과 비교를 해 보면 18세기국어에서 ‘상태지속’의 의미를 가지는 ‘-고 있다’가 많이 나타난다. 결국 ‘-고 있다’ 구성의 경우에는 ‘진행’이나 ‘완료지속’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비슷하게 사용되었지만 ‘상태지속’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57)에서 ‘진행’의 ‘-어 있다’ 구성이 15세기국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완료지속’의 경우에는 각 시대별로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상태지속’의 경우에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형용사의 경우 18세기까지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어 있다’ 구성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 순서를 정한다면 대략 ‘진행>상태지속>(형용사)>완료지속’ 순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고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대체로 15세기국어의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대체로 15세기국어에서 나타나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서 모두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의 5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고 있다' 구성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한다면 '-어 있다' 구성은 점차 '-고 있다' 구성에 그 영역을 내어주고 특정 영역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고/어 있다' 구성에서 나타나는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고 있다' 구성의 경우에는 모두 '-을'을 지배하는 동사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어 있다' 구성에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에'를 지배하는 동사와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같이 나타났다. '-을'을 지배하는 동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근대국어에서도 '-어 있다' 구성에 '-을'을 지배하는 동사가 쓰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 18세기에서 새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동사 중에 피동형이나 사동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사동형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피동형의 경우에는 '-을'을 지배하는 동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국어로 하면 '-어지다'로 해석할 수 있는 동사들이 '-어 있다' 구성에 많이 보인다는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고 있다' 구성과 '-어 있다'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미로 '진행, 완료지속, 상태지속'을 설정하고 각 구성에서 이런 의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다. '-고 있다' 구성의 경우에는 18세기에서 '상태지속'의 의미가 좀더 많이 나타나지만 '진행, 완료지속, 상태지속'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에 비해 '-어 있다' 구성의 경우에는 '완료지속'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꾸준히 보이지만 '진행'의 예는 거의 보이지 않고 '상태지속'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형용사의 경우 18세기까지 나타났다. '진행>상태지속>(형용사)>완료지속' 순으로 '-어 있다' 구성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注〉

1) 이기갑(1981)에서는 15세기국어를 진행 형식의 발달 초기 단계로 보지 않고 문헌의 성격 상 진행 표현이 자주 사용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이는 임흥빈(1976)에서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를 '행위의 끝을 상징할 수 있는 동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 3)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동사들이 처격조사를 지배하는지 목적격조사를 지배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본고에서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에서 그 예에 나오는 동사가 지배하는 조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4) 권용경(2004)에서도 「두시언해 중간본」에 나오는 예들을 15세기국어의 예로 참고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두시언해 중간본」은 근대국어 자료로 다루기보다는 15세기국어 자료를 보충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5)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살고 있다'와 '살아 있다'의 의미 차이를 15세기국어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살고 있다'의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기국어에서 '-어 있다' 구성이 '진행'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살아 있다'가 '살고 있다(진행)'와 '살아 있다(지속)'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에 제시하는 '살아 있다'의 예는 '살고 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 阿修羅 둘히 大海人 7새 살라 이서 <법화경언해 6, 37뒤>
- 6) '-어 있다' 구성에 나타나는 '진행'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대국어의 직관으로 자료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어 있다' 구성을 '진행'으로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7) '들고 있다, 보고 있다'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진행'인지 '상태지속'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본고에서는 일단 '상태지속'으로 처리하였다.
- 8) 이지양(1982)에서는 형용사(E류 동사)가 지시하는 상황은 처음과 끝이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고 하였는데, 15세기국어에서 형용사가 '-어 있다' 구성에 쓰인 것은 '지속'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 9) '죽이다'는 목적격조사 '-을'을 지배하는 동사인데, 이 예에 나오는 '죽여 있다'를 현대국어로 하면 '죽이고 있다'라는 진행형이나 '죽였다'라는 과거형으로만 된다는 점에서 현대국어와는 다른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

〈參考文獻〉

- 권용경(2004), 「'-고 가다' 구성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형태론』 6.2, 317-337.
- 남윤진(1989), 「十五世紀 國語의 接續語尾에 대한 研究」, 국어연구 93.
- 박덕유(1998), 『國語의 動詞相 研究』, 한국문화사.
- 이기갑(1981),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227-236.
- 이남순(1981/1998), 「現代國語의 時制와 相에 대한 研究」, 『時制·相·敘法』, 월인, 7-102.
- 이남순(1998), 『時制·相·敘法』, 월인.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국어연구 133.
- 이지양(1982), 「現代國語의 時相形態에 대한 研究」, 국어연구 51.
- 이현희(1991), 「국어 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국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흥빈(1976/1998), 「부정법 (-어)와 상태 진술의 (-고)」, 『국어 문법의 심층』, 태학사, 593-621.

‘-고/-어 있다’ 構成の通時的变化について

權容璟

神田外語大学

中期語や近代語において ‘-고 있다’ 構成に現れる動詞は、おおよそ 15 世紀語の ‘-어 있다’ 構成に現れる動詞であった。‘-어 있다’ 構成に現れる動詞は、おおよそ 15 世紀語と同一の動詞が、16 世紀と近代語に多く現れた。これは、‘-고 있다’ 構成は徐々に拡大し、‘-어 있다’ 構成は徐々に特定領域に限定される傾向を見せるものであると言えよう。‘-고 있다’ 構成においては、‘-을’ を支配する動詞だけ現れるが、‘-어 있다’ 構成においては、15 世紀から 19 世紀まで ‘-에’ を支配する動詞と ‘-을’ を支配する動詞が共に現れた。17, 18 世紀の ‘-어 있다’ 構成に被動形が多く用いられるのは、‘-을’ を支配する動詞の数が減少することと密接に関連するものと思われる。‘-고/-어 있다’ 構成の ‘進行, 完了持続, 状態持続’ の意味に関しては、‘-고 있다’ 構成は進行, 完了持続, 状態持続’ が似たような様相を見せるが、‘-어 있다’ 構成は ‘完了持続’ だけが中期語と近代語においてずっと見られ、‘進行’ や ‘状態持続’ は少しずつ無くなっていくのが確認された。むしろ形容詞の場合、18 世紀まで ‘-어 있다’ 構成が現れた。‘進行>状態持続>(形容詞)>完了持続’ の順に ‘-어 있다’ 構成が用いられなくなったと言える。